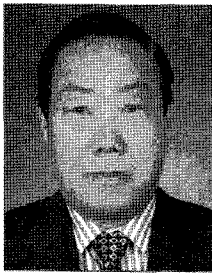


# 古代 동서 교역교통로인 Silk Road 탐방기행

*Travelogue of silk road as trade transportation road between east and west at ancient times*



글 | 李 暻 甲  
(Rhee, Seong Kap)

- 식품기술사, 농학박사
- 한국기술사회 홍보위원
- 호서대학교 식품생물공학과 초빙교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연구위원

E-mail: 2860sk@hanmail.net

말로만 듣던 고대 인류의 동서양 교통로인 비단길(실크로드) 즉 돈황, 하미, 선선, 투루판, 우루무치 지역의 역사유적지의 유물들을 실제로 단기간 탐방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주마간산 격으로 체험한 관광기행문을 실크로드 개요와 탐방현지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하는 '초원의 길'과 중국 서북지역에서 중앙아시아 사막지대를 경유하여 유럽에 도착하는 '사막의 길' 또는 '오아시스길'과 선박을 이용하여 중국 화남지역과 동남아시아, 인도를 거쳐 페르시아에 도달하는 '바닷길'이 있다.

## 1. 일반적 개요

### 1.1. 오아시스길

Silk road란 내륙 아시아를 횡단하는 고대 동서통상로로 보통 비단길(Silk Route)이라고 알려진 고대에 비단무역의 계기로 중국과 西域 각국의 정치·경제·문화를 이어준 육해교통로의 총칭으로 독일의 지리학자 리히트호펜이(Seidenstrassen; 絹街道)라고 처음 사용한 명칭이다. 총길이 6,400km에 달하는 실크로드는 중국 中原 지방에서 시작하여 허시후이랑[河西回廊]을 가로질러 타클라마칸 사막의 남북 변을 따라 파미르 고원, 중앙초원, 이란 고원을 지나 지중해 東岸과 北岸에 이른다.

오아시스(Oasis)길이란 중앙아시아의 사막(건조지대)과 반사막에 점재하는 오아시스를 연결하여 동서로 뻗은 길을 일컫는다. 사막을 비롯한 건조 지대의 군데군데에 항상 물이 고여 있어 수목이 자라고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오아시스다. 오아시스는 사막인들의 생활 보급자리일 뿐만 아니라, 교역의 중심지로서 거기에서 문물이 집산되고 교통이 발달되어 왔다. 실크로드 중에서 가장 심장부에 위치한 오아시스길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역사시대 전에는 초원로가 많이 이용되었으나 이후에는 오아시스길이 동서교류의 주요통로로 사용되었다. 기원전 6세기부터 서아시아 지대에는

실크로드는 북방 유라시아의 스텝지역을 횡단

이미 상당히 발달된 교통로가 만들어졌으나, 파미르 고원이 장애가 되어 완성되고 있지 못하다가 기원전 138~126년 후한의 장건(張騫)이 파미르 고원의 지나 대월지에 이르는 길을 개척함으로써 비로소 완전한 길이 만들어졌다.

### 1.2 비단길의 역할

첫째 동서를 잇는 무역로로서 중국에서는 특산인 비단이, 서쪽에서는 옥이나 보석, 유리제품 등이 이 길을 거쳐 운반되었다. 또 사자와 포도·석류·호두·완두·참깨·오이·겨여목·잇꽃 등의 식물류, 비파·공후 등의 악기, 음악과 무용, 요술·꼭예를 비롯하여 중앙아시아·서아시아의 산물과 풍속이 중국에 전해졌다. 또한 인도의 불교, 이란의 조로아스터교와 마니교, 네스토리우스파의 그리스도교(景敎), 이슬람교(회교)등의 종교도 전해졌다. 또한 당대의 장안에는 페르시아인을 비롯해 적지 않은 수의 서역인들이 거주하게 되면서 호복(胡服)·호모(胡帽)·호악(胡樂)·호무(胡舞)·호병(胡餅) 등 각종 호풍(胡風)을 유행시켰다. 서역의 문물이 중국 사회에 전파되는 한편, 중국의 주철(鑄鐵) 기술, 양잠, 제지법 등이 서방으로 전달되었다.

비단길은 상업로로서 뿐 아니라 동서문화의 전달로로서도 큰 의의를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이 중국과 서남아시아 문화권을 연결했던 실크로드는 현재 파키스탄과 중국의 신장웨이우얼 자치구[新疆維吳爾自治區]를 잇는 포장도로로서 부분적으로 남아 있으나 몽골제국이 두 문화권을 포함하는 유라시아대륙의 대부분을 지배하게 되자 자연히 그 역사적 의의를 잃어갔다.

### 2. 여행일지

▶ 1일차 : 해피하루 투어 여행사의 주관으로 실크로드 천산북로(우루무치, 투루판, 선선, 하미, 둔황) 코스에 참여한 실크로드 탐방단은 저녁 7시 20분에 우루무치를 향해 인천국제공항을 떠났다. 비단길 탐방단 22명은 중등학생부터 75세의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었고 대한항공(KE9883)승객 160명의 90%이상 한국 탐방객이었다. 비행기는 4시간 반이 걸려 현지시간 11시50분에 목적지인 우루무치공항에 도착하였다. 8월의 우루무치는 밤 10시가 넘어야 해가지고 섭씨 40도면 선선한 날씨라고 한다. 현지시간은 한국과 한 시간 차이가 나며 출근시간은 오전 10시, 점심시간은 오후 2시 반, 퇴근시간은 7시 반이다. 여행자의 설레는 마음으로 밤 12시가 넘어 현지가이드를 만나 30분을 버스로 이동 후 5성급 미려화 호텔에 새벽1시 도착하여 피곤한 몸의 피로를 풀었다.

▶ 2일차 : 우루무치(烏魯木齋) 관광은 천산과 천지 그리고 홍산공원 등의 명소와 유적지의 관광을 시작하였다. 우루무치란 몽고어로 '아름다운 목장'이란 뜻이며 도시는 옛 실크로드 북로에서 약간 빗겨나 있어 둔황이나 투루판처럼 도시 내에 역사 문화 문물은 그다지 많지 않으나 현재 인구 250만명의 위구르자치구 수도이다.

해발 1900m인 천산등반을 위하여 케이블카와 전동카로 작은 천지에 도착하여 만년설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한 후 유람선을 타고 천지호수를 감상하였다. 산정식당에서 현지식으로 점심식사 후 홍산공원을 들러 시내 전경을 관광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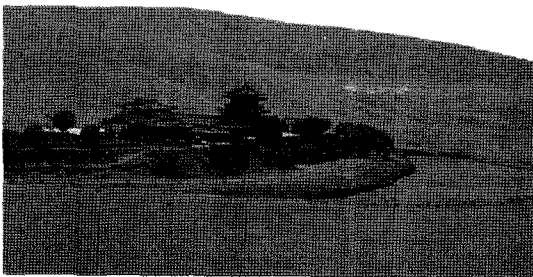
고 둔황을 가기 위해 제남행 야간침대열차에 몸을 싣고 11시간 밤새 사막철도를 달려, 다음 날 아침 8시20분에 중간역인 유원역에 도착하였다.

▶ 3일차 : 유원역에서 관광버스로 2시간 비포장도로를 달려 역사유적지인 둔황(敦煌)에 도착하여 바로 1650m높이의 모사산인 명사산에서 낙타타기, 모래설 매 등의 체험관광을 즐기고 바로 옆에 있는 초생달 모양의 사막오아시스인 월아천을 둘러보았다. 중식 후 둔황태양호텔에 투숙하여 모래먼지를 샤워한 후 오후일정으로 타클라마칸 죽음의 사막지대안의 양관고성(실크로드의 남로 시발점)에 들러 전동차로 전망대에 올라 사막을 깊이(“해신”촬영set장) 관찰하였다. 명사산은 막고굴(Mogao Grotto)에서 시작되어 당상강에서 남북이 20km, 동서가 40km, 넓이가 600m<sup>2</sup>나 되는 어마어마한 모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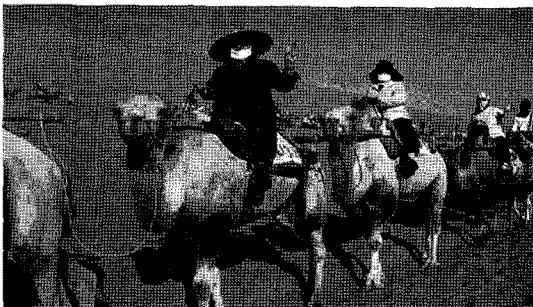
산으로 고비사막의 작은 모래와 돌이 퇴적된 산의 평균 높이는 100m이지만 가장 높은 곳은 해발 1,715km나 모래산이다. 바람이 부는 대로 시시각각 변하는 사막의 모습과 더불어 바람이 불 때 모래가 움직이며 소리가 난다해서 ‘鳴砂山(명사산)’이라 한다. 높은 모래 산을 쉽게 등반하려면 왕복 낙타를 타거나 나무계단을 하나 하나 밟고 정상까지 올라가 대나무 모래 썰매를 즐기면서 쉽게 내려 올수 있다. 월아천은 길이가 100m, 넓이가 25m, 평균 깊이가 5m인 사막의 오아시스로 가까이 가서 물을 만져볼 수는 없었으나 그 옆 모래 언덕에 누워 뜨거운 모래 찜질을 하며 월아천과 도교 사원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 4일차 : 둔황은 타림분지를 남북 양쪽으로 지나는 길목으로 실크로드의 요충지이고 20세기에 접어들어 막고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세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우리 일행은 조식 후 둔황에서 동남쪽으로 25킬로미터 떨어진 명사산 산기슭에 있는 막고굴(莫高窟)을 탐방하였다. 막고굴은 실크로드를 통해서 불교가 후한시대에 중국본토에 전해지고, 동진시대에 수성암(水成岩) 절벽에 무수한 석굴사원을 파기 시작하여 1000여년간 700개의석굴을 만들었고 그 중 천연색 불상과 벽화가 들어 있는 굴은 492개라고 한다.

막고굴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1907년 스타인(영)이 약 1만건과 그 다음해 펠리오(프)에 약 1만 5천건의 고문서를 구매하고 난 후라고 한다. 1987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현재 관광객들에게 공개하는 굴은 25개



▲ 월아천 오아시스 전경



▲ 명사산 낙타타기 月牙川 (오아시스) 전경



▲ 둔황막고굴 정면에서



▲ 막고굴 중앙 전경사진

에 불과하고, 전문안내인은 이 중에서 10여개의 굴을 선정, 안내한다. 우리일행도 중국인 가이드의 안내로 탐방하였는데 중국인 전문 안내자의 한국어가 서투러 굴 내부의 불상이나 벽화들의 설명이 부실하였다. 16호 석굴 내에 왕원록이 또 다른 동굴인 17호 석굴을 발견하여 장경동(藏經洞)이라 하고 발굴 당시 벽화 3000여매, 고서 54,000여권이 있었고 혜초 스님의 왕오천축국전도 이곳에 있었다고 한다. 일본인이 도굴한 이곳 유물 중 60여점의 벽화와 조각, 공예품 등 총1700점이 우리 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니, 국내에 서도 막고굴의 유물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막고굴 관광하고 시내식당에서 낙타 발 요리 및 대추요리시식 후 5세기에 서역구자 왕국 쿠마라습이 불교를 둔황에 전한 것과 그가 타던 백마를 기념해서 만든 명대 라마타 양식의 백마탑을 관광하였다.

▶ 5일차 : 둔황을 새벽6시 출발하여 하미까지 모래, 자갈의 비포장길인 고비사막을 달리면서 일출을 보았고 13시간이상 달려 하미에 도착하였다.

하미(哈密)는 실크로드의 동대문으로 신장 지역에 들어서면 처음 나타나는 오아시스 도시로 감숙성과 신강성의 분기점 위치하여 실크로드의 남로와 북로가 모두 연결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실크로드의 거점도시다. 하미는 청나라 때까지 자치권을 인정받은 하나의 왕국이었으나 왕국의 흔적은 간곳없고 하미왕릉에서 9대의 역대 왕들의 무덤만 남아있어 이곳을 중국인들은 하미 역대 회왕묘군이라 한다. 또 중국인이면 누구나 하미라는 도시보다는 하미파(주황색 수박 모양의 멜론)라는 과일로 유명하다. 오후 2시간 달려 하미에서 북쪽으로 약 150km에 위치한 빠리쿤 명마의 고향인 천산산맥정상의 서늘한 빨리쿤 초원 유원지를 방문산책 하였다.

▶ 6일차 : 하미에서 1박하고 버스로 4시간 걸려 선선의 쿠무타크 사막의 고운모래 사막을 전동차로 돌아보고 바로 황토색의 진흙 벽돌 성벽으로 된 고창고성을 위그로족이 운영하는 노새마차로 이동하여 천 년전 축성한 성곽을 둘러본 후 화염산 천불동의 폐허된 동굴을 들려 트로판 시내교 화장원 호텔에 투숙 하였다.

▶ 7일차 : 투루판(吐魯番)은 인구 약 25만 정도인 작은 도시로 주민은 70%가 위구르족이고, 20%가 한족이며, 나머지 10%는 후이, 몽골, 카작 등이다. 이곳의 관광은 조식 후 고창국의 귀족, 상인, 서민들이 잠들어 있는 미라를 볼 수

있는 아스타나 고분군을 관람하였고 이어 시내에서 3km 떨어진 이슬람 양식의 소공탑(44m)을 답사한 후 카레즈 박물관과 지하 수로를 방문하였다. 카레즈 지하수로(Karez Irrigation)는 일명 '땅속의 만리장성'이라고 하며 한나라 때부터 만들기 시작되었는데 천산에 덮인 눈이 녹아 흘러 내리는 물의 증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간격으로 땅속 깊이(30~90m) 우물을 파고 그 구멍 밑바닥과 밑바닥을 연결하여 물이 흐르도록 3~20km길이로 통로를 1,100개 만들어 전체가 5천km에 이르며, 지금도 물을 공급받아 마시고,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으니 2,000년전 선조들의 덕을 토틈히 보고 있는 셈이다. 오후 40℃이상 불가마 같은 날씨를 견디며 세계문화유산인 30m 높이의 요새로 된 교하고성을 방문하여 가이드 설명을 들으면서 성안을 둘러 주요 유적잔해를 관광하였다. 그 후 포도농가를 방문하여 웨이우얼족 전통복장을 입은 아가씨들이 제공하는 투루판 명물인 투로판 포도를 시식하였고 이곳의 포도재배는 2천년 이상 되었고 종류만도 100여 품종에 달한 다고 한다.

▶ 8일차 : 투루판에서 우루무치로 가는 도중 많은 석유원유시추시설과 아시아 최대 풍력발전단지(풍차500기) 그리고 염해를 거쳐 카자흐족의 방목지인 남산목장을 방문하였다. 중식 후 마지막 관광으로 우루무치 신장 위구르 박물관을 관람하였다. 박물관은 총 3부분으로 되었는데 첫 번째는 신장역사관, 두 번째는 '민족민속동부전람', 세 번째는 미이라 전시실로 꾸민 것은 그만큼 이 신장 지역에서 미이라가 많이 발굴되었기 때문이다.

'누란(樓蘭)의 미녀'도 다른 미라들처럼, 큰 코



▲ 누란국의 미라

에 가지런히 앞으로 모은 손, 여전히 성한 것 같은 신발에 비단 옷의 색깔까지 남아 있다. 아래 층에는 부인인 여자 미이라가, 위층에는 남편인 사내의 미이라가 진열되어 있다.

이번 여행에서 사막속의 실크로드 도시들은 인공적으로 가로수나 정원의 초목들은 심고 관계시설을 설치하고 아침저녁으로 물을 주어 이루어 놓은 것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기후 환경에 살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행복함을 느끼게 되었다. 또 현지 가이드가 한국인의 관광을 수박 겉핥기식 현장 확인 관광이라고 하여 아직 까지도 1988년 하와이 관광 때에 가이드가 한국인의 관광을 설파한 말 “왔노라” “찍었노라” “갔노라”가 아직도 유효함을 이번 여행에서도 실감하게 되었다.

(원고접수일 2010년 8월 15일)